

배화피플 4



김백준 성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웹툰 및 영상 스토리 작가&기획자, 5개월 차 크로스피터, 영화모임 Jardin du cinema 운영진, 배화교회 리트레칭 총괄 기획자, 꺾인 30대, 독립출판 입문자, 2월까지 해방촌 주민, 에고그램(정에 훔쓸려 정신적으로 피곤할 타입), 애니어그램 5번, MBTI INFP, 그리고 왓차에서 인정한 '아마추어 영화인'.

2. 2020년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경력 부문으로는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교회 속회 프로그램 리트레칭을 기획하면서도 재미를 느꼈고, 제가 어느 정도 Planner의 기질이 다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유튜브와 구성을 함께하는 영상 구성 기획자로도 발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 기획자의 이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앙적으로는.. 신앙적이란 단어 자체에 먼저 회의가 느껴지네요. 제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가깝게 붙어있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모든 결과에 감사를 느끼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저 나름의 성공에도 불안해하고, 실패에도 절망하는 답 없는 인생이 되리란 걸 압니다.

3) 2020년 배화교회 성도들과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서로 더 대화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리트레칭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상과 접촉했을 때 낯을 가리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감상을 나누는 데에서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고, 속을 가내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영화는 훌륭한 중립의 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취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곧 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해요.

저는 배화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서로 어떤 인생으로 자신을 조각하며 왔는지 궁금하고, 다져져가고 있는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모양새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자기소개란에 있는 모든 단어의 첫 시작은 모두 호기심에서 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호기심. 나는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받아들여지는 존재인가에 대한 호기심. 이만큼 다른 모양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저는 이런 저의 '문제제 호기심'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댓글 달아주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아, 살 수 있다. 지금 너가 숨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죄속에서도 너가 커피를 마시고, 안도하고, 슬픔을 느끼고, 환희를 나눌 수 있는 삶을 부여해준 것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감사해도 된다, 그리고 분노해도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해주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도 말씀해주셨던 분이 궁금합니다. 커피 한 잔 놓고 얘기해 볼까요?

배화교회

주보 제 2020-4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20.1.26

주헌 후 제 3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회 중: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집사)

주 이름 찬양 / 아름다우신 + 위대하신 주

대표기도 권태성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배화교회의 기도 2

1. 빛으로 오신 주와 동행하며 사람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히는 촛불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나타내소서
2. 교회로 모인 성도의 사명- 진실한 사랑 배우게 하사 주님의 한몸 이루어가며 성숙의 기쁨 알게 하소서
3. 길 잃은 세상 생명 잃은 땅에 예수가 주신 복음 전하세 산위의 등불 희망의 소리 주님의 교회 이루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사사기 17장 1-6절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벳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김영석 목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의 집에 부적이 있었다

파송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80명
헌금	십 일 조 김영석 홍병진 박세연 박진성 백수산나 송민혜 이동근 이은미 함은혜 허경식 허하나 감사헌금 김영석 홍병진 김은철 김종민 홍성희 송민혜 함은혜 허경식 주일헌금 권태성 김백준 김선아 김용석 유재연 김택운 김택현 박세연 박 준 서하량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이아름 서민욱 임경훈 주 영 임대혁 임서준 임아인 임종현 박성임 정우석 조재희 최명성 최정용 추세영 최찬양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허하나 무 명 목적헌금 성임숙 허경식 함은혜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배화교회 집사워크샵

2020.2.2

성경적 의미, 교회 전통... 그래서

'집사'란 무엇인가?



신년 아침기도회

2월 1일 - 21일

월-금 오전 8시, 배화여대 필운관 기도실

준비물: **손으로묵상**

금요기도회

2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금 오후 8시, 기도실

2-4월: **로마서** 성경공부

속회모임

오늘은 구정연휴 관례로 속회모임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를 보내세요.

집사워크샵

다음 주일에 연합속회로 집사워크샵을 진행(남여선교회 회장)합니다.

리트레칭

2월 둘째 주일부터 4주 동안 '영화 콘텐츠와 함께 자신과 공동체, 세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속회는 3월에 시작됩니다.

기획위원회

2월 첫째 주일, 집사워크샵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2속(하모니)입니다.

· 대표기도

2.2	김미소	2.9	김선민
-----	-----	-----	-----